

# 엔터테인먼트

## Entertainment

### 그룹 DJ.DOC 7집

#### 5년8개월만에 발표

그룹 DJ.DOC(이하늘, 정재용, 김창렬)이 5년8개월 만에 발표하는 7집 음반을 콘서트에서 공개한다.

DJ.DOC은 10~11일 워커히 호텔 리버파크(아와수영장)에서 열리는 '2010 DJ.DOC 폴사이드 파티'를 통해 7집 수록곡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지난해 발매하려다가 미뤄진 이들의 7집은 싸이와 용감한형제, 라임버스 등이 곡 작업에 참여했으며 밝은 힙합곡과 사회 풍자곡 등 총 12곡이 수록된다.

### 드라마 '로드 넘버 원' 소지섭

## 벌써 30대 중반, 눈빛이 깊어지다

“다시는 이런 작품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 연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작품이 제작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MBC 수목극 '로드 넘버 원'(극본 한지훈, 연출 이장수·김진민)에 출연 중인 소지섭(33)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드라마가 자신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드라마 속 자신의 캐릭터인 이장수에 대해 “오로지 수연(김하늘) 하나만을 생각하는 인물이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이것 하나만 보고 달려간다”며 “이 사람 쪽도 록 사랑한다”라는 감정으로 연기를 했는데, 나도 '바라기 스타일'이라는 장우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제작비 130억원 규모의 대작 드라마인 '로드 넘버 원'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여자(김하늘)와 두 남자(소지섭·윤계상)의 애절한 사랑과 뜨거운 우정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첫방송을 해 1~2회는 10% 안팎의 다소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

“첫주 방송을 집에서 혼자 TV로 시청했다”고 한 그는 예상보다 낮은 초반 시청률에 대해 “앞으로 더 보여줄 것이 많기 때문에 시청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다”며 “프로그램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시청자평을 봤는데 비판의 글을 보니 오히려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점에서 묘하게 힘이 되더라”고 말했다.

'로드 넘버 원'은 첫 방송 이전에 촬영을 마치는 '사전 제작' 방식으로 제작됐다.

그는 “야외 촬영이 계속돼 처음에는 피부에 신경쓰며 껍을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며 “촬영 중 그냥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추울 때도 있었고 더워서 고생한 적도 많았다”고 촬영 중 어려웠던 점을 들려주기도 했다.

소지섭은 2004년 TV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후 폼나는 패션과 연기 스타일로 '소간지'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소간지라는 별명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꾸미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편안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런 별명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 나이로 34살인 소지섭은 작년 연말 여배우 한지민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어디서 그런 이야기(열애설)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한지민씨와 이전에는 편하게 지냈지만 열애설이 난 뒤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이어 “소집해제 직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는 홀몸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연애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가 연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한다”고 말하며 같이 연기한 최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최민수 선배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눈으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는 게 그저 연기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상으로 뭔가 쌓여야 가능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전에 비해 눈의 깊이가 틀려진 게 스스로도 느껴집니다.” /연말뉴스

“지금 나이 연기 도움 만족해 한지민과 편하게 지냈는데 열애설 난 뒤로 연락 끊겨”



“재미있는 방송을 통해 명콤비로 태어나겠습니다.”

### 내달 예능프로 MC 데뷔 MC몽·하하

## “이름 내건 토크쇼 숨턱 막혀 부담 크지만 웃겨 드려야죠”

연예계의 ‘절친’인 MC몽(31)과 하하(31)가 자신들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정식으로 론칭한다.

이들은 지난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후 다음 달 4일 오전 10시45분 정규 편성되는 SBS TV ‘하하몽쇼’를 통해 지상파 TV 예능프로그램의 MC로 데뷔한다.

목동 SBS에서 열린 ‘하하몽쇼’의 제작발표회에서 하하는 “감개무량하다. 그러나 군 복무로 2년간의 공백이 있어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물론 엄청하겠지만, 강호동, 유재석 두 형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제목이 ‘하하몽쇼’인 것에 대해 MC몽은 “그냥 ‘하하쇼’였으면 좋겠다. 진짜로 제목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부터 숨이 턱 막힌다”면서 “하하의 이름이 내 이름 앞에 있는 것이 발음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몽이가 저렇게 말해도 프로그램명을 ‘몽하’로 추천하기도 했다”며 웃은 하하는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척 큰 부담이고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각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과 MBC TV ‘무한도전’에서 최고 MC인 강호동, 유재석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그들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MC몽은 “호동아 형의 오른팔은 이승기, 왼팔은 이수근이고 난 형의 왼팔 새끼발가락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형은 물이 조심조심 정도를 넘지 말고 하라고 충고했다. 좋은 MC는 못 돼도 즐겁고 유쾌한 MC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MC몽은 “너무나 존경하는 조용필 선배님을 꼭 모시고 싶다. 감히 빌 수만 있다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님과 친숙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하하는 “전 나훈아 선배님, 패티김 선배님과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우리 프로그램이 선배님 간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말뉴스

